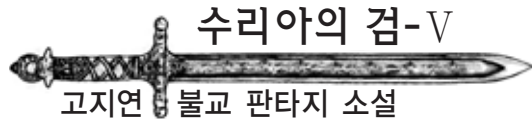


# 이곳은 꿈도 현실도 아니란다. 바로 내 기억 속이지



모든 것을 기억하는 노인 (5)

무니는 오래 전 유리 영감의 오두막에서 나뉘던 대화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난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무니는 뭔가가 떠오른 듯 노인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의 피부는 희고 윤기가 흘렀으며 눈동자는 검고 깊었다. 반듯하게 이어지던 콧날은 끝에서 살짝 뭉툭해졌고, 입술은 흰 수염에 거의 가려지긴 했지만 맑고 붉은 빛 같았다. 어느 한 부분도 모난 데가 없이 부드러운 생김새였다. 분명 유리 영감의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그 지혜로운 자의 외모와 흡사했다. 무니가 보내는 그 시선의 의미를 알아챘는지,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 이제야 그 젊은이 생각이 나는구나.”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런 젊은이들은 어디든, 어떤 시기든 꼭 한 명씩 나타나거든. 여기를 잘 정리해두지 않으면 헛갈리기 십상이지.”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노인이 말했다. 무니는 자신도 모르게 손뼉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역시 그 지혜로운 자라는 사람이 영감 당신이었군! 하지만 뭔가 이상해...”

무니는 고개를 가우하며 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유리 영감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책은 확실히 아주 오래된 것이었어. 유리 영감도 그렇게 말했거든.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을 수 있지? 말이 안 되잖아.”

“하하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소리로 들리는구나. 아상티,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노인은 자신의 옆에 앉아서 있던 말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러자 말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보였다.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당신 정체를 밝히면 될 거 아니야? 혹시 정령이야?”

무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따지듯 물었다. 노인이 다시 소리 내어 웃기 시작했다.

“너는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가 궁금하군보구나.”

“당연하지. 너무 이상하니까. 그리고 여기를 좀 봐.”

무니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유리 영감의 오두막에서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바로 그 장면들이잖아. 그 금빛 인간은 분명 사트라 카르만이라는 존재일 테고 말이야. 게다가 옛날이야기 속 주인공이 바로 내 눈앞에 있어.”

무니는 갑자기 자신의 뺨을 꼬집으며 말했다.

“그래, 아마 이걸 꿈일 지도 몰라!”

그런데 이상했다. 전혀 아프지가 않았다. 무니는



삼화·김홍인

반대쪽 뺨도 꼬집어보았다. 마찬가지로였다. “왜 안 아프지?” 이번엔 한 쪽 발을 들어 반대 발을 힘껏 밟았다. 역시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무니는 다시 노인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부드러운 감촉만은 여전했다. 무니는 머리를 움켜쥐며 괴로움의 신음소리를 냈다.

“내 몸에 무슨 이상이라도 생긴 거야? 아니면 진짜 이곳은 꿈속인 걸까?”

“글쎄. 지금 이것이 꿈이라면 힘껏 깨어나면 되지 않겠니? 내가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려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꿈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래야 깨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지금 너는 네 자신이 꿈속에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 그 젊은이도 이상하지 않냐?”

무니는 머리가 무거워졌다. 차크라바라를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 중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다.

“꼬마야. 그렇게 집어 뜬다간, 남아나는 머리칼이 하나도 없을 거 같으니 관두거라.”

무니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다. 자신을 또 꼬마라고

부르는데도 발끈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노인의 입가에 여전히 온화한 미소만이 걸려있을 뿐이었다.

“이곳은 말이다. 꿈도 현실도 아니란다. 바로 내 기억 속이지.”

“기억 속?”

마치 낮이 나간 듯한 말투로 무니가 되물었다.

“그래, 이제까지 내가 본 모든 장면들은 모조리 여기에 저장 되어있던 것들이란다.”

노인은 또 다시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무래도 이쯤에서 내 이름들 중 하나쯤은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구나. 네게 그것이 필요하다면 말이야. 나는 나가세나라고 한단다. 어떤 책에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노인이라고 소개하기도 한다더구나. 아상티처럼 다른 이름들도 많지만, 내게는 가장 익숙하고 편한 이름이지.”

“나가세나. 모든 것을 기억하는 노인...?”

자신이 서 있는 이곳이 지금 눈앞에 있는 노인의 기억이라니, 믿기 힘든 말이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구나.” 노년의 표정을 읽은 노인이 말했다.

“당연하지. 당신이 나라면 그런 말들을 믿을 수 있

겠어? 처음엔 이곳이 어딘지, 다음엔 영감 당신이 도대체 누구지, 그리고 지금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걸. 내가 어떻게 해야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머릿속만 더 복잡하게 만들었잖아. 이제 뭐? 모든 것을 기억하는 노인이라고? 그럼 좋아.”

무니는 한껏 찌푸리고 있던 표정을 퍼더니 턱을 치켜들었다.

“유리 영감의 이야기에 등장했던 그 멍청한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 봐. 그럼 믿을게. 지금 이곳도 당신의 기억 속이라고 했으니, 기억 속에서의 이동도 물론 가능하겠지?”

“글쎄. 그게 가능할까.”

무니의 그 말에 내내 미소를 잃지 않던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뭐야. 그렇다면 이제까지 한 이야기는 다 무효야. 무효라고! 어서 진짜 정체를 밝히시지!”

무니는 눈을 크게 뜨고 노인을 노려보며 말했다. 노인의 입가에 슬그머니 미소가 다시 피어오르는 게 보였다.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알 수 없는 그 미소를 본 무니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그때 노인이 그런 소년의 손을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

당겼다. “그래, 그럼 어디 한 번 가보자꾸나.”

하지만 무니는 그 말을 끝까지 채 들을 수 없었다. 눈앞에 다시 찾아온 눈부신 빛에 또 정신을 잃었기 때문이다. 희미하게 남가, 아니 아상티가 내는 풀피리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다 사라졌다.

한없이 이어질 것 같던 눈부신 빛의 소용돌이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이번에도 소용돌이의 저편에서 문이 탁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다. 무니가 의식을 차린 것도 그 소리 때문이었다. 간신히 몸을 일으킨 무니는 주위를 둘러봤다. 노인과 아상티가 보이지 않았다. 무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순간 현기증이 일어났지만, 이마를 짚고서 다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먼저 확인한 건 하늘빛이었다. 다행히 보라색 하늘이 아니었다. 다른 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울창한 나무숲과 초목의 풀, 노란색의 들꽃들. 그가 원래 살았던 세계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무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돌아온 건가?”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노인의 힘이 아직도 느껴지는 듯 했다.

“그게 다 꿈이었다면 정말 실감 나는 꿈이었어. 나중에 난다에게도 이야기해줘야지.”

“이제 일어났구나.”

무니는 낮익은 그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노인과 아상티였다. 안도하던 무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실망으로 바뀌었다.

“맘소사, 아직도야?”

무니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그런 소년의 모습을 걱정스럽게 쳐다보던 노인이 말했다.

“괜찮으냐? 아무리 기억이라고는 해도 시간을 넘나드는 건 워낙에 힘든 일이니 몸이 많이 지칠게야.”

“힘들어서가 아니라, 난 모두 꿈인 줄로만 알고 안

심하고 있었다고.”

무니는 처져던 어깨를 조금 끌어올렸다.

“여긴 어디야? 영감이 시간의 시작이라고 말했던

곳을 떠나오긴 한 것 같은데.”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와 문답을 주고받았던 그 어리석은 젊은이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달라고 말이야.”

무니는 깜짝 놀랐다.

“그럼 여기가 바로 그때 그 장소란 말이야?”

“그래, 자, 저기를 한번 보렴.”

무니는 노인이 가리키는 방향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 멀리 어떤 형체가 보였다. 사람처럼 보이긴 했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너무 하얗고, 앙상해서 도저히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몸이 늘어 보이기도 했다.

“저건 누구지?”

“네가 궁금해 했던 바로 그 젊은이란다. 저게 바로 그의 노년 모습이지.”

무니는 “저 사람이?”라고 되물으며 놀란 표정으로 그 사람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그가 고개를 휙 돌리더니 무니 쪽을 쳐다보았다.

## 사찰 양도

- 대전에 소재한 사찰로 토지 약 1800평, 신축 4층 건물로 높이는 일반 건물의 2배정도, 연건평 560평, 10여개의 홀로 구성됨. 주차시설 80대 이상 가능, 주변에 땅지 많음.
- 대로변에 위치, 톨게이트에서 5분거리, 전철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세종시 15분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음.
- 입구는 사도이고 주변이 숲으로 독립된 공간이며 청정지역임.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있음.
- 포교당, 불교대학, 명상센터, 교육·연수원, 갤러리, 장례법당, 납골당 등으로 적지임.
- 계룡산 아래 위치해 소나무 숲으로 주변 경관이 좋고, 등산로와 약수터 등이 조성되어 있음.
- 양도 의향이 있으니 011-455-108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전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종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제 (평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함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종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 3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사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3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경북

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시후 보험가입 함

**사찰 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